

‘소외된 땅’ 호남 발전 씨앗 뿌렸다

■ 광주·전남 경제와 DJ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임기 중에 정치적 고향인 목포를 찾은 것은 딱 한번뿐이다. 취임 6개월만인 1998년 8월 25일 서해안고속도로 무안~목포 구간 개통식에 참석한 것이 전부다. 그렇다고 고향살리기에 소홀한 것은 아니다. 외 환위기를 극복하고 남북대화를 주도하는 와중에도 ‘소외된 땅’ 호남을 챙겼다. 서해안고속도로 조기개통, 여수엑스포 유치 기동, 무안국제공항 본격 건설, 대불산단단지·목포항·광양항 활성화, 광주 광산업 육성, 아시아자동차 기아 인수, 삼성백색기전 광주이전, 컨벤션센터 건립 등 지역경제 발전의 토대를 쌓는데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

◇서해안고속도로 조기개통=김 전 대통령의 지역발전 구상은 서해안고속도로로 무안 구간 개통식 참석차 취임 후 처음 광주시와 전남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그 윤곽을 드러냈다. 그는 서해안 고속도로 조기개통 등 각종 SOC 확충, 아시아자동차 광주 잔류 등 지역경제 활성화, 여수엑스포 유치에 대한 범정부적인 지원, 대불산단과 광양컨테이너 항의 활성화 등을 약속하거나 지시했다.

그는 한국도로공사 목포영업소 광장에서 열린 준공식에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서해안 고속도로의 완공을 더는 늦출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투입, 계획된 공기를 1년 앞당겨 2001년까지 전 구간을 개통시키겠다”고 약속한다. 약속대로 호남고속도로는 2001년 12월 21일 완전 개통돼 목포~인천 통행시간이 7시간대에서 4시간대로 줄었다.

지역경제에서 서해안 고속도로 조기개통의 의미는 남다르다. 연간 6천 억원 이상의 물류비를 절감하게 하는 것은 물론 대불 등 전남 서남권이 군장, 아산, 반월, 시화, 남동 산업단지 등 서해안의 대규모 산업단지와 연계돼 시너지 효과를 거두게 했고,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전남도의 최대 야심작 가운데 하나인 ‘J 프로젝트’도 서해안도로가 아니면 수립할 수 없는 계획이었다.

◇광주 3대 핵심산업 지원=김 대통령은 이틀남인 26일 광주시 초도순시에서 당시 부도도 앞날이 불분명하던 아시아자동차 처리 기준을 제시한다. 그는 “아시아 자동차는 어느 업체가 인수해도 광주를 안 떠난다”고 분명히 했다. 그의 이런 지침을 바탕으로 박태원 대통령 공보수석, 박광태 국회산업자원위원장, 정동태 민주당 시지부장 등이 현대자동차 정공구 회장과 접촉, 아시아자동차의 현대 인수를 권유한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애초 아시아

자동차는 대우차가 인수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되면 잘못될 수 있다고 대통령께서 제동을 걸었다”고 회고했다.

정동태 전 문화관광부 장관은 “정몽구 회장은 아시아자동차를 인수해 광택으로 옮겨 갔는데, 물류사장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광주에 두는 것을 무척 억울해 했다”며 “대통령님의 지원이 아니었으면 어려웠을 일”이라고 말했다.

매출 1조원대의 삼성가전 라인이 중국으로 이전하려다가 광주로 방향

확충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밝힌다. 엑스포의 경우 1차 유치 실패로 DJ의 지원효과가 무산되는 듯했으나, 2차 유치전에서 성공해 전남 동부권 발전의 초석을 다지게 됐다.

SOC 확충도 괄목할 만 했다. 전남도의 경우 DJ정부 출범 전 마지막으로 편성됐던 98년 국고지원액에 2조 622억원에 불과했던 것이 5년 후엔 3조 4천억원으로 무려 1조 4천억원이 증가했을 정도다. 무안국제공항과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등 각종 기간 교통망이 DJ시대에 완공되거나, 시작

확충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밝힌다. 엑스포의 경우 1차 유치 실패로 DJ의 지원효과가 무산되는 듯했으나, 2차 유치전에서 성공해 전남 동부권 발전의 초석을 다지게 됐다.

서해안고속도로 조기 개통 자동차·가전·光산업 지원 여수엑스포 초석 다지기도

을 든 배경에도, 그때까지만 해도 생소한 ‘광(光)산업’을 광주에서 시작한 것도, 산업자원부에서는 반대하던 광주컨벤션센터를 건립하게 된 것도 김 대통령의 결정적인 격려와 지원이 있었다. 광주가 소비도시라는 오명을 벗고, 생산도시로 발돋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자동차·가전·광산업 육성에 DJ의 힘이 작용했던 것이다.

◇미완의 과제 넘겨=김 전 대통령은 이처럼 여러 분야에서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했지만, 결정적인 부(富)는 가져오지 못한 것으로 퇴임 당시 평가를 받았다. 외형적인 수치로는 성과가 있었으나, 지역민들의 생활형편이 크게 나아진 것이 없어서다. 재임 당시 고향 인근으로 전남도청 이전이 결정된 것도 부정적인 평가에 한 몫 했다. 전남도청 이전은 광주 도심의 공동화를 필연적으로 부를 수밖에 없었다.

지역경제 전문가들은 “김 전 대통령이 소외의 상징이던 광주·전남 발전의 전기를 마련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분의 뜻을 받들어 이제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은 후손들의 몫으로 남았다”고 말했다.

◇여수엑스포 유치 초석 다져=전남도 초도순시에서 김 대통령은 2010년 여수 해양엑스포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 지원하고, 낙후된 목포권 지원을 위해 대불산단 29만평을 외국인 산단으로 지정하며 각종 SOC를 지

었다. 호남 소외의 상징인 호남선 복선화 사업도 35년만에 완공하게 됐다. 생활산업을 전남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게 한 것도 DJ다.

◇미완의 과제 넘겨=김 전 대통령은 이처럼 여러 분야에서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했지만, 결정적인 부(富)는 가져오지 못한 것으로 퇴임 당시 평가를 받았다. 외형적인 수치로는 성과가 있었으나, 지역민들의 생활형편이 크게 나아진 것이 없어서다. 재임 당시 고향 인근으로 전남도청 이전이 결정된 것도 부정적인 평가에 한 몫 했다. 전남도청 이전은 광주 도심의 공동화를 필연적으로 부를 수밖에 없었다.

지역경제 전문가들은 “김 전 대통령이 소외의 상징이던 광주·전남 발전의 전기를 마련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분의 뜻을 받들어 이제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은 후손들의 몫으로 남았다”고 말했다.

◇여수엑스포 유치 초석 다져=전남도 초도순시에서 김 대통령은 2010년 여수 해양엑스포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 지원하고, 낙후된 목포권 지원을 위해 대불산단 29만평을 외국인 산단으로 지정하며 각종 SOC를 지



DJ센터 개관 테이프 커팅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난 2005년 9월 김대중컨벤션센터 개관식을 겸한 광주 광산업 전시회에 참석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지역 경제제도 추모·애도

박흥석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등 성명

광주지역 경제단체와 재계 인사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시하며 그가 외환위기 극복과 중소기업 육성, 한국의 주력 업종으로 성장한 IT(정보기술)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는 등 경제계에도 큰 족적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지역 경제계 인사들은 특히 김 전 대통령이 광산업을 광주의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지역경제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에도 기여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고인을 추모했다.

광주상공회의소 박흥석 회장은 성명을 통해 “김 전 대통령은 외환위기 당시 국가부도 위기를 단기간에 극복했고 기업규제 완화와 외자유치 등에도 큰 성과를 이뤘으며, 지역균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발판을 마련했다”며 “우리 모두 고인의 숭고한 뜻을 가슴깊이 새기고 민족통일과 국민통합의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여성경제인연합회 김광덕 회장은 “김 전 대통령은 여성경제인들

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경제영역에 있어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경제인들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했다”며 “서거 소식에 애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강영태 본부장은 “김 전 대통령은 대중경제에 관심이 많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셨던 분”이라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용채 공동대표는 “수많은 역경 속에도 정의와 국가를 위한 마음이 변치 않고 오히려 박해자를 용서하고 감싸안았던 고인의 인간적인 면모를 본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광주지역본부 노영렬 의장은 “평생을 독재정권 종식과 민주주의 정착, 한반도 통일을 위해 힘썼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에 깊은 조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금호타이어 파업 수위 낮춰 기아차는 광주 콘서트 연기

금호타이어 노조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지역정서를 감안해 파업수위를 낮출 예정이다. 18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지회 등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노조는 당초 내일부터 전면파업을 계획했으나 이날 갑작스런 김 전 대통령의 서거로 투쟁 수위를 조절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아울러 19일 광주역에서 열릴 예정이던 금속노동자대회도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관계자는 “김 전 대통령에 대한 광주 지역의 특별한 애도 정서를 고려해 내일 집회를 연기하고 금호타이어의 전면파업 등을 조절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노조 관계자도 “사측의 정리해고안에 맞서 파업은 계속하겠지만 당장의 수위는 조율될 것”이라며 “광주전남지부의 지침이 정해지면 그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기아자동차도 20일 광주 염주 실내체육관에서 열기로 했던 ‘광주사랑 기아사랑 썸머 빅콘서트’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로 연기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연 일지는 추후에 다시 공지할 계획이다. 이번 공연을 위해 이미 배포된 입장권을 가진 고객들은 연기된 공연일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우리고장! 우리치킨

다우치킨피카

신제품 개발

다우치킨 피카

다우치킨 피카

신제품 개발

다우치킨 피카

다우치킨 피카

다우치킨 피카

다우치킨 피카

다우치킨 피카

